



해경스님의

### 경전읽기

법화경 ⑦ 수학무학인기품

#### 아난다의 서원과 라훌라의 밀행

이 '수학무학인기품'의 내용은 아난 다와 라훌라 및 2천 명의 사이크사(Saiksa) 즉 배우고 있는 사람(學人)과 사이크사(Asaiksa) 즉 배움을 마친 사람(無學人)들에 대한 수기이다.

부처님의 시자 아난다와 부처님의 큰아들 라훌라는 지금까지 사리푸트라를 비롯한 많은 성문들이 수기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수기를 받고 싶다고 원했다. 배우고 있는 사람과 배움을 마친 2천 명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난다에게는 '큰 바다와 같은 지혜의 노닐음에 통달한 분'이라는 산해해자재 통왕불(山海慧自在通王佛)이, 라훌라에게는 '일곱 가지 보배로 된 붉은 연꽃을 밟고 넘어가는 분'이라는 달월보화여래(踏七寶華如來)가 되리라고 수기하셨다. 이때 새롭게 불도에 뜻을 세운 보살들 8천 명은, 대보살마저도 얻을 수 없는 부처님의 성불에 대한 예언

의 받아들이고 불도를 성취한 지금에 는 부처님의 법을 계승하여 상속할 만 아들이며 많은 부처님의 받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라훌라의 밀행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왜 아난다와 라훌라는 늦게 수기했을까. 주제 넘은 생각이지만 석존의 마음 속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난다는 자기의 4촌 동생이며 20여 년간이나 항상 곁에서 시봉하고 있었다는 것, 또 라훌라는 육신의 아들이라는 것, 즉 양쪽 모두 현재신(現在身)의 석존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도리어 수행을 위해서는 마이너스의 요소가 숨어 있음을 고려하여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늦게 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단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속된 해석일 것이다. 석존은 그런 응축한 분은 아니었다.

### 가르침 간직·보살교화 서원 아난다 미래세 성불, 부처님법 계승 라훌라

이 왜 성문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의 의문에 응답하여 설하신 것이 아난다의 과거이며 라훌라의 밀행에 관한 것이다.

"아난다와 나(부처님)는 그 옛날 전생에서 '가르침의 하늘에 오른 임금'이라는 부처님 즉 공왕불(空王佛) 아래서 불도를 지원했다. 아난다는 항상 많이 듣기를 원했고, 나는 언제나 열심히 정진했다. 그리하여 나는 불도를 완수할 수 있었으나, 아난다는 가르침을 지켜 간직(護持)하고 또 장래에 걸쳐서도 부처님의 교법을 호시하고 많은 보살들을 교화할 것이다. 이것이 아난다가 전생에서 품은 서원이었던 것이다."

이상이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수기를 주실 때 들려주신 전생의 사연이며 아난다는 이것을 듣고 즉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었다.

다음에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라훌라를 향해 설하신다. "라훌라는 미래 세에 성불할 것이니,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섬기고 그 여러 부처님의 받아들이 될 것이다. 라훌라는 출가 전에는 석존

항상 곁에 있던 아난다의 경우, 아무래도 다른 제자들과 같은 순수한 귀의가 어려울 것이다.

육신의 아들도 마친 가지여서,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분일지라도 외부의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고 도리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난다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가까운 사람 즉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또는 아들이라든가 혹은 부모를 교화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사람은 말로써 인다 하려고 해도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실제의 행에 의해서 감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 행이라 는 것도 훌륭한 일은 가끔 있을 뿐, 평소에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나 보기 흉한 행위가 더 잦다면 감화의 결실을 거둘 수 없다. 항상 끊임없이(常住不斷)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석천스님은 자신의 본래 비방인 자기불을 만날 때까지 일념정진할 것을 당부한다.

#### 석천 스님은?

#### 관음보살 친견 원력...배 5척 海上법당 11년

1928년 황해도 웅진에서 출생한 석천스님은 동화사에서 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젊은 시절 여러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각처의 선지식들에게 법을 물었다. 동화사에서 9하안거를 성만했고 문경 김룡사 금선대에서 서암스님을 모시고 정진하기도 했다. 서울 보광사와 하북 원적암 등지에서 바랑을 즐기

도 했고 제주에서 토굴생활을 하기도 했다.

관세음보살 친견원력을 세운 스님은 통영시 한산도 한산사에 거처를 정하고 한척의 소형 배로 해상법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5척의 해상법당을 도량삼아 포교와 정진에 매진하고 있다.

선박을 개조해 해상법당을 운영한지 11년, 스님은 75세의 고령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한 솜씨로 키를 움직여 배를 운전했다. "이게 뭐 솜씨랄 것이 있나. 바다가 늘 잔잔하니 배길도 수월하지" 선장이기도 하고, 기도 온 신도들 앞에서 법문을 하는 법사이기도 한 스님에게 배를 운전하는 일은 목탁을 치는 일만큼이나 간단한 일상이 돼 버렸나보다.

신도들의 승선이 끝나자 배를 잠시 후진했다가 한산도를 향해 길을 잡았다. 작은 섬들이 손에 잡힐 듯 스쳐지나가고 갈매기들이 손수건처럼 펄럭이며 배를 따라 왔다. 법당에서는 천수경을 시작으로 기도가 시작됐다.

"한산사는 외진 곳이라 신도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찾아오는 신도들이

다 이 해상법당의 신도들이지. 내 절 신도 네 절 신도를 따지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일체중생이 다 부처님 신도면 된 것 아닌가."

석천스님이 해상법당을 시작한 동기는 무엇일까. "방생이라는 방편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해요. 생명을 살려주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가장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이죠. 생명을 풀어주고

# “사람사는게 죄다 방생인줄 알아야 해”



## 가까이서 뵈 큰스님

### 석천스님 (한산사 주지)

스님의 도량(道場)은 바다다.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150여 개의 섬들이 저마다의 비경을 뽐내는 한려해상 공원. 관음도, 미륵도, 세존도 등 섬들의 이름에서 불교와의 친한 인연을 느낄 수 있는 한려수도의 바다를 만나기 전 통백이 진된 한뼘이나 자란 보리밭 골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남녘의 봄을 먼저 만났다. 봄기운 때문일까. 바다로부터 아우성의 먼 여운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거제시 범동마을에서 30분 뱃길을 지난 곳에 한산도가 있고 그 해안에 제비집 같은 한산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지만 정작 석천스님은 범동마을 간이 선착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용궁호, 관음호 등 다섯 척의 선박법당이였다. 스님은 무척 비웠다. 마침 정월달이라 전국에서 방생 오는 신도들을 맞이하느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살려주는 그 순간에 보살심의 씨앗이 맺히고 언젠가는 그 씨앗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돋고 열매가 익습니다. 성불의 열매를 방생이라는 자비의 씨앗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편에 떨어져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방생을 기복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신도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스님은 "사람 사는게 다 방생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방생이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신을

아니라 부처님과 거래하듯 나서는 것에 불과해요. 이 한 미리의 물고기가 전생에 나의 부모형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풀어서 살려 주어야 하겠지요. 그런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불자라면 생일날만큼은 반드시 방생을 하라고 권해요. 자신이 태어난 중요한 날 다른 생명을 풀어주고 살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복되게 하고 연장하는 일이기도 하나요. 그렇다고 꼭 방생도량을 찾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웃에게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부모님이 낳아준 고마움을 다시 새기는 것도 생일방생의 좋은 방법이에요."

석천스님은 출가 이후 줄곧 선방생활을 했다.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 용맹정진을 하고 만행도 했다. 그러나 만나는 선지식들이 일러주는 공부 방법을 따랐지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벗어 던질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서산 개심사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정진하는 100일 용맹정진을 홀로 성만하고 난 뒤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자는 서원을 세운 것이다.

"성불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처를 이룬다는 말인데,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와 내가 회구하는 자기불(自己佛)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여 그 자비와 구세구간의 원력을 이

## 나와 自己佛 일체돼야 성불 기복은 佛과 거래하자는 것

향한 방생이라는 것이다. 삼목심이 일으키는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방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석천스님은 해상법당을 찾은 신도들에게 "무엇을 빌려는 방생이 아니라 자신의 보살심을 발아시키는 지극한 마음을 일으키는 방생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물고기 한 미리를 살려주는 대신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은 방생이

대.한.불.교.조.계.사  
조계사

## 실천하는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1기 조계사불교대학원 신입생모집

<p><b>과정</b> 2년 4학기제 / 주 1회 / 학기당 16주 강의</p> <p><b>특징</b> 방학특강 실시, 수행실습, 수행도량 탐방, 상담심리학 특강 불교의식 특강 등 다양한 강좌를 개최하여 이론과 실재를 겸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p> <p><b>교과목</b> 교학 및 수행과정(화엄경, 대지도론, 아함경, 유마경 등)</p>	<p><b>불교지도자 리더십 / 세계불교의 현황과 활동 공동체문화와 타종교의 수행</b></p> <p><b>지원자격</b>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가한 불교대학 졸업생 또는 동등 자격자</p> <p><b>모집부문</b> 주간반 50명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50명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p>	<p><b>제출서류</b> 본원 소정양식의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1부</p> <p><b>등록안내</b> 등록금(학기당) 45만원 가족(부모·형제·자매·부부)2인 이상 불교대학을 동시에 수강할 경우 한 분에 한하여 등록금 50%, 국가 유공자 50%, 생활보호 대상자 80% 할인</p>	<p><b>원서접수</b> 2월 28일(수) 15시</p> <p><b>개강</b> 2002년 3월 15일(금)</p> <p><b>문의 및 접수 포교국 720-1390, 6742</b></p>
---	--	---	--